

## 첨단 포장전문화 교육 인프라 통한 발전 계획

### 포장전문가 양성프로그램 및 전문포장직업인 교육시스템 운영



곽상호

순천청암대학 포장과 교수

포장산업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국내 대학내에서의 포장교육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경북과학대학 포장과를 시발로 국내 대학 포장학과는 현재, 용인송담대학, 신성대학의 세 개 대학을 기반으로 성장해 왔으며 지난 해 연세대학교 응용과학부 패키징 계열이 신설되면서 국내 최초의 4년제 대학내 포장학과의 토대를 마련하게 된다. 내년 2004년도 호남권 최초로 순천청암대학에 포장과가 설립을 앞두고 포장전문화 교육 인프라 구축을 통해 발전을 계획하고 있는 곽상호 순천청암대학 포장과 학과장(교수)을 만나 학과 설립에 대한 견해 및 향후 발전 계획에 대해 들어보았다.

“순천청암대학에 신 직업 교육기관으로서의 사명감과 강건한 신념을 기반으로 포장과를 신설하게 되어 누구보다도 가장 기쁩니다. 학생모집에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는 주변의 우려가 많지만 이 같은 우려를 기우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컴퓨터 관련 공학을 전공한 이후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회사에서 업무를 진행해 온 곽상호 교수는 우연한 계기로 식품공학에 대해 공부하게 된다. 진공포장을 비롯한 포장용기에 대해 알아가면서 포장에 대한 사고방식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변했다는 곽 교수. 금번 순천청암대학에 포장과가 신설된다는 소식을 접한 그는 포장에 대한 열정으로 학과장 직을 지원하게 된다.

“포장학과 비전공자라는 이유로 저를 격정하시고 염려해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의 포장학에 대한

열정과 각오는 남다르다고 자부합니다. 컴퓨터 전공을 통해 얻게 된 뛰어난 능력과 업무 분석력으로 열심히 노력해 비전공자도 열심히 하면 잘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곽상호 교수는 순천청암대학 포장과를 첨단 포장전문화 교육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산학 협동에 의한 주문식 교육을 통해 전문적인 이론과 실무를 현장중심으로 교육하고 우수한 인재들을 배출할 계획을 갖고 있다. 그는 “순천청암대학 포장과가 발전해가는 모습을 보일 때 학생들 스스로가 순천청암대학 포장과를 직접 찾아오는 날이 있으리라 확신한다”고 밝히면서 현재의 포장과 지원 부족을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곽상호 교수는 먼저 광양만권의 경제권과 고흥 지역의 개발 사업들을 연계한 형태의 사업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 포장물류시스템을 순천청암대학 포장과에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산·학·연·관이 모두 참여하여 범 지역적인 포장문화 활성화 사업을 전개하게 될 것이며 추후 학생들도 돈을 벌면서 학교를 다닐 수 있다는 새로운 형태의 사업성 교육 모델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 외에도 곽교수는 기존 관련 학과와 차별화를 위해 포장전문가 양성프로그램, 전문포장직업인 교육시스템 운영, 여성전문부업 특성화사업, 포장시스템 인큐베이터 가동 등 다양한 차별화 전략을 통해 순천청암대학 포장과를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곽상호 교수는 현재 국내 포장 관련 교재 및

자료들의 부족함을 지적하면서 하루빨리 포장관련 교재를 표준화하고 많은 사람들이 손쉽게 접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포장산업을 연구·발전시키고 특성화하기 위해 포장이라는 학문이 복합적인 기술을 연계한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임을 인식하고 전문인력을 지금보다 많이 채용해서 포장의 품격을 높여나갔으면 좋겠다고 밝히는 곽 교수.

그는 “포장전문화 사회의 구축을 위해 협회나 관련단체가 현재보다 많은 홍보와 노력으로 포장정보에 대한 대중화에 앞장서 나가길 바란다”고 말하면서 “포장산업 전반에 걸친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체계적인 지원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포장과를 이끌어가면서 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공으로 가는 조그마한 장애물이라 생각하고 최종 목적지에 도달 할 때까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것만이 우리 포장과 학생들을 위해 제가 해야 할 마지막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곽상호 교수는 순천청암대학 포장과 신설에 대한 포장인들의 높은 관심과 기대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밝히면서 국내 포장산업의 발전과 밝은 미래에 대해 확신하고 있는 만큼 청암대학 포장과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호남권 최초의 순천청암대학 포장과가 2004년도 신입생들을 계기로 탄탄한 토대를 마련, 국내 포장관련 전문대학으로 발전하길 기대해 본다. ☎

박초혜 기자